

人
스토리
마흔네 번째
성미자

지금이 기적 그 자체

말하기·그리기: 성미자 듣기·쓰기: 안재우·하가현

'마음을 비우고 사니까 이렇게 편안해지는구나.'

세상 사람들도 마음을 비운다면
모두가 편안할 수 있을 텐데, 라고 생각하는 순간,
행복이가 어서 가자고 줄을 당긴다.
성미자 씨는 행복이를 앞세우고
산책을 마저 하러 다시 일어선다.



천권도서관 人 스토리

人스토리 마흔네 번째 성미자

지금이 기적 그 자체

말하기·그리기: 성미자 듣기·쓰기: 안재우·하가현

성미자

천권도서관 人스토리

국수 한 그릇



행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다면 가장행 시작이
해오른다.

말이 가난하다 보니 수필이나 되는 가족의 재가를
해주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었다. 한달은 공짜로
수 없었고, 하루 정도만 나는 일정한 국수 한 그릇
만저 가족들의 재가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음식
이었다. 어린 실마주 하는 먹고 싶은 음식들을 다
을껏 먹는 공을 아주 했다.



악연의 시작



